

12-17-17 성탄연합예배, 김영련 목사

(12-17-17 Christmas Joint Service, Pastor Young Rhyon Kim)

누울 곳이 없으셨던 아기 예수님 (Baby Jesus who had no place to sleep)

누가복음 2: 1-7

(Luke 2:1-7)

서론 (Introduction)

오래전 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가족여행을 떠났다.

I went to a family trip with my father long time ago.

경북 영암이라는 지역에 온천(hot spring)이 있었다.

There was a hot spring at a town called "Young Ahm" in the State of "Gyong-Buk" in South Korea.

늦게 그 지역에 도착했다.

We arrived there late at night.

호텔마다 찾아갔는데 방이 없었다.

We tried to get a hotel room. But there was no room available for us.

할 수 없이 우리는 비싼 방을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

We had to go to an expensive one...

그나마도 다행이었다.

It was a relief for us even though it was expensive

만일 그 방도 없었다면 우리는 차에서 잘 수 밖에 없었을텐데...

If we did not have that room, we had to spend the night inside the car.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한다.

Today, we are reminded of the birth of Jesus.

그분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나, 어떻게 태어나셨나,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첫번 출생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We would like to think about where he was born and how he came to the world by looking at the birth of Jesus through the Scripture.

본론 (Body):

예수님의 출생하실때의 상황 (Context surrounding the birth of Jesus)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는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를 다스릴 때였다.

Caesar Augustus was the ruler at the time of the birth of Jesus.

가이사 아구스도는 당시 로마황제로서 로마 뿐 아니라 지중해 여러나라를 복종시키고 다스리고 있었다.

Caesar Augustus was a Roman emperor. But his reign was not limited to Rome. But he reigned over many nations surrounding Mediterranean Sea.

그는 로마제국온나라에 호적을 하도록 명령하였다.

He ordered to conduct an Empire-wide census.

당시 팔레스타인은 구레뇨라는 사람이 총독으로서 다스리고 있었다.

At that time, Quirinius was a governor in the region of Palestine.

그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 자기 관할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도록 명령하였다.

Following up with the command of the emperor, Quirinius made an order to conduct a census in his governing region.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서 호적하기 위하여 자기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간다.

Joseph, who is to be a father of Jesus went to the town of Bethlehem to partake in the census, because he belonged to the house of David.

그당시 요셉은 마리아라는 처녀와 정혼한 상태였다.

At that time, Joseph was pledged to get married to Mary.

마리아는 임신한 몸으로 정혼한 남편과 함께 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갔다.

The pregnant Mary took on a journey to go to Bethlehem with her future bridegroom, Joseph.

그들이 고향에 도착하였을때 마리아는 임신기간이 다 차서 출산을 하게 되었다.

By the time they got to Bethlehem, a time came for Mary to give a birth to a child.

그러나 그 가정이 머물 집이 없었다.

But they had no place to stay.

이유는 그 당시 호적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뿐 아니라 수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찾아왔기 때문이다.

It was not just Joseph and Mary who came to Bethlehem. But many people came to Bethlehem to conduct the census.

결국 그들은 여관에서는 방을 얻을 수 없고 짐승들이 머무는 마굿간에 갈 수 밖에 없었다.

Joseph and Mary ended up not being able to get a room in the inn. They had to stay in the manger which is full of animals.

1 세기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매우 단순한 삶을 살았고 사람이 사는 방과 짐승들이 사는 공간이 거의 붙어있었다.

1st century people lived in a very simple way. A place for people and a place for animal were right next to each other.

그리하여 비록 방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축들이 머무는 있는 공간(마굿간)에 들어갔다.

Joseph and Mary stayed in the manger even though they did not get a proper room.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v. 7)

생각해 보라.

Think about it.

이 아기가 누구인가?

Who is this baby?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려 오던 메시야가 아닌가?

Isn't this the Messiah whom Jews have been waiting for a long time?

그는 누구인가?

Who is he?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Isn't he the Son of God?

그는 지구와 별들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니신가?

Isn't he the Creator God who made the earth, stars and the whole universe?

그런데 그가 왔을 때 그는 이 땅에 누울 방이 없었다.

But when he came to the world, he did not even have a room to lay his head.

요한을 이렇게 말한다.

Apostle John said this.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요 1: 10-11)

He was in the world, and though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He came to that which was his own, but his own did not receive him. (John 1:10-11)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He came to his world. But his people did not receive him.

이것은 영적으로도 사실이고 현실적으로도 사실이었다.

This was true both spiritually and physically.

예수님은 단지 영적으로만 거부당하신 것이 아니었다.

Jesus was not only rejected spiritually.

그는 물리적으로도 자기 땅에왔으나 자기 백성들은 그에게 태어날 방을 주지 않았다.

But he came to his world. But his people did not have a physical space for his birth.

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How surprising is this?

그 당시 왕은 거의 신과같은 존재였다.

Back then, a king had a status like a god.

어느 나라든지 왕의 아들, 즉 왕자가 태어난다면 그 나라의 최고의 방에서태어났다.

In all nations, a child of a king was always born in the best place in the entire nation.

최고의 침대에서 최고의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태어났을 것이다.

The child has a best bed and is treated by best doctors.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못하셨다.

But Jesus did not come in that way.

단지 여행중이라서, 방이 너무 모자라서만은 아닌 것이다.

It was not because they were travelling. It was not because there was no room.

세상은 그를 받아드릴 장소가 없었다.

But the world did not have a place for him.

적용 (Application):

누군가 여러분 방 문을 두드리며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면 쉽게 문을 열어줄 수 있겠는가?

Will you open your house to strangers if they knock on your door to stay for a night?

아니, 혹 여러분이 여관이나 호텔을 경영한다면 어떤 사람을 방으로 들이겠는가?

If you are an owner of a motel or a hotel, what kind of people will you take?

당연히 돈이 많고 숙박비를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It is obviously rich people and people who can pay more.

하나님께서서는 이것을 다 아셨지만, 자기 아들을 보내실때,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한가한 때를 택하지 않으셨다.

God knew all this in advance. But He did not send his Son to the world at the time when it is uncrowded.

그의 부모를 부자중에서 택하지도 않으셨다.

God did not choose rich parents.

그는 아주 복잡하고 붐비는 시간에 가난한 부부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God sent his Son to poor parents and when it was crowded.

이것보다 더 큰 겸손이 어디 있는가?

Isn't this the greatest act of humbleness?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

God who humbled himself.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who humbled himself!

크리스마스는 엄청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Christmas shows a great act of humbleness to us.

하나님의 낮아지심.

Humbling God.

자기의 모든 권세와 위엄과 권리를 비우신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who emptied his authority, majesty and rights.

말의 구유에 누우신 세상의 왕,

The King of the world who was laid in the manger.

하늘의 왕.

The King of the heaven.

여러분과 저는 이 거룩한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을 깊이 생각하자.

Let us meditate the humbleness of God in this Christmas season.

그리고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기로 결심 하자.

Let us serve others instead of being served. Let us try to understand others instead of trying to be understood by others. Let us make a commitment to love others instead of being loved.

이것이 주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God is giving us this message through the birth of Jesus.

2017 년 미국 산호세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다.

A similar incident happened in San Jose in 2017.

온누리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을때에는 갈곳이 없었다.

Onnuri Church did not have a place to go after leaving the denomination.

웨스트밸리 교회가 우리를 받아주었다.

But West Valley Presbyterian Church accepted us (Onnuri Church).

여러분의 겸손하고 낮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곳을 찾았다.

We were able to find the place to worship through your humbleness and serving heart.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웨스트밸리 교회와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에게 감사드립니다.

Like the humbleness of Jesus, we thank God who led West Valley Church and Onnuri Church up to this point.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항상 마음을 낮추어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받아들이자.

As individuals, let us always humble ourselves and accept people who are going through more difficult time than us.

아멘.

Amen.